

한우안테나 - News

□ 사료제조업 누구나 참여가능

앞으로는 남은 음식물사료와 미량광물질사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뒤야 되며, 동물성 사료 또는 남은 음식물사료가 포함된 사료는 반추가축에게 사용 또는 급여금지하는 내용을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해야 된다.

특히 앞으로는 누구나 배합사료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깻묵과 같은 부산물과 농산부산물 등도 사료업체에서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각계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신고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한국단미사료협회 또는 한국사료협회에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된 사실을 알고도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않거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료안전관리인에게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토록 했다.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중 생산능력 제한규정을 폐지, 소규모 배합사료제조업의 진입제한을 개선하고, 사료의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일부시설을 갖추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방지토록 했다.

[축산신문 8월6일 김영란]

□ 한우비육농, 고급육 생산 못하면 적자경영

한우 송아지가격이 185만원 안팎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육질 1등급 이상의 한우고기를 생산하지 않고는 비육농가가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반대로 고급육 생산이 불가능한 농가는 입식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우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한우가격 강세현상이 앞으로 2~3년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180만원이 넘는 수송아지를 입식해 단순하게 비육하면 생산비를 건지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우가격은 송아지가 185만원선을 오르낙 내리락 하고 있고, 500kg 큰수소는 320만원선에서 형성되고 있어 지금 송아지를 입식해 1년이나 1년 반 후에 현재의 수소가격으로 출하할 경우 큰수소와 송아지가격 차액이 1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종현 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은 “비육농가가 현재 송아지를 입식해 수지를 맞추려면 소를 출하해 4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거세장기비육으로 650kg 정도까지 키워 도체 kg당 1만1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육질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문연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은 “올부터 거세장기비육이 지급되면서 거세비육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가 본격 출하될 내년말이후에도 거세한우고기 가격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소 사육기반을 늘려야 한다”며 거세한우고기에 대한 소비홍보를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8월8일 최기수 기자]

□ 식육 거래내역 기록 의무화

앞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별 매입처, 거래량, 거래일자 등 거래내역을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된다.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생우를 도축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그 수출국과 국내 수입동물 검역계류장 도착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또 축산물판매업자는 식육의 종류별·원산지별 매입처, 매일량, 매입일자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육매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선 안된다.

특히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거래되는 식육의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에 생우 수출국, 국내 동물검역계류장 도착일, 수입 생우의 국내 도착 6개월 경과여부 등을 표시해야 된다.

농림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쇠고기 및 생우 시장개방으로 누구나 소를 수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이를 도축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에 따라 수입산 생우의 도축검사신청관련규정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세법상 거래증빙자료 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판매관련 기록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유통의 투명성 확보수단이 없어 식육소매단계에서 둔갑판매가 용이하고, 식육위해 발생시 효율적 회수가 곤란, 식육판매업영업자가 식육의 거래내역을 기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산신문 8월8일 김영란 기자]

□ 내년 유기축산시범사업 시행

내년부터는 유기축산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농림부는 환경친화적인 유기축산육성과 국제수준에 적합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내년에 우선 한우·젓소·돼지 각각 10개소, 닭 20개소, 전문판매장 4개소에 축발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7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유기축산 품질인증기준안에 따르면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해야 하고, 기타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환경영향 등을 고려 적절히 정하도록 했다.

특히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100%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 오는 2010년말까지는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 반추동물의 경우는 유기사료를 85% 이상 급여해야 하고, 비반추동물의 경우는 유기사료를 80% 이상 급여토록 했다.

더욱이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이라든가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첨가했거나 기타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을 사에 첨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안된다.

[축산신문 8월13일]

□ 한우 수소의 거세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7월 중 등급판정한 소 도체 5만7,896마리중 한우도체 4만3,549마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소 거세율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수소 거세율은 올해 초 10% 내외였으나

5월 15.9%, 6월 1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등급관정소 유무상 팀장은 “한우 수소거세율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해 거세장려금(한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다 한우농가들도 고급육 생산 방법으로 거세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올 2월 60.2%까지 증가했던 암소도축률은 7월에는 51.2%까지 떨어져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

[농민신문 8월22일 이종순 기자]

□ 경기도- '경기한우' 명품육성 박차

경기도는 오는 2005년까지 70억4000여만원을 들여 한우개량사업,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기한우를 육성기로 했다.

지난 20일 도가 발표한 '경기한우 중장기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급육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안성맞춤 한우, 양평 개군한우 등 권역별고급 브랜드육 생산단지 10개소를 지정, 중점 육성기로 했다.

또 경기한우의 취약분야인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6억원을 들여 안성시 금광면 15만평 부지에 어머소 500마리를 입식, 매년 우량 송아지 360마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 한우개량사업에 9억4000만원을 들여 한우 고급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1만7530마리의 한우 수송아지 거세를 위해 35억원의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능가에 마리당 20만~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신문 8월24일 이장희 기자]

□ 교잡우 한우둔갑 '의혹'

한우고기 공급물량이 줄어든 틈을 타 산지에서 교잡우를 한우값과 거의 비슷한 값에 매입하는 거래가 성행, 한우 둔갑 유통 의혹을 낳고 있다.

산지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축산물도매시장에서 교잡우 경락값은 한우값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산지에서는 한우값의 90% 수준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 유통관련 전문가들은 이처럼 산지에서 고가로 매입된 교잡우가 도축 후 정상적인 값에 판매될 경우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한우로 둔갑 유통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남빈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경매실장은 “현재 교잡우 지육 1Kg당 경락값은 일반 젓소보다 약간 높으나 한우지육 경락값 1만2,000~1만3,000원의 절반 수준인 6,000원선에서 경매되고 있다”며 “때문에 산지에서 한우값의 90% 이상을 주고 매입한 교잡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판장을 거쳐 유통시켰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둔갑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정은수 조사역은 “둔갑 유통은 한우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다”며 “따라서 정부 통계에서부터 한육우 대신 한우·육우·교잡우 등으로 세분화하고 제주도로부터 육지로 반입되는 교잡우가 한우로 둔갑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8월27일 김태억 기자]

□ 한우 자연종부 '손해'

한우를 자연종부(種付)하면 인공수정에 비해 큰소로 사육해 판매할 때 한마리당 43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소장 이종우)가 인공수정과 자연종부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연종부로 태어난 송아지는 인공수정 송아지에 비해 일당 증체량의 예상전달 유전능력(EPD)이 120g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2개월령까지 사육했을 때 자연종부의 경우 큰소의 체중은 470Kg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공수정을 하면 자연종부를 한 것보다 80Kg이 많은 55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500Kg 큰수소값을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인공수정료 5만원(2회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자연종부는 인공수정에 비해 마리당 4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박노형 박사는 “고능력 보증종모 한우로부터 생산된 정액으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송아지는 비육 후 육질도 자연종부에 비해 우수,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육질등급별 차등경락값이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종부에 따른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가축개량사업소 이성수 박사도 “자연종부로 태어난 암송아지는 잘 크지 않아 나중에 가임암소가 됐을 때 더 작은 송아지를 출산, 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따라서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보증종모 한우로부터 생산된 정액을 이용, 인공수정하는 것이 한우 마리당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 가축개량사업소는 한우 정액생산용 고능력 보증종모우 44마리를 보유하고 연간 최대 250만 스탁의 정액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민신문 8월29일 이종순 기자]

□ 나주공판장, 소경매 '호평'

【전남】농협나주공판장(장장 정찬주)이 실시하고 있는 소 경매가 한우사육농가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나주공판장은 소 경매제도를 통해 쇠고기 유통구조개선 및 공정거래확립을 기하고 공판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소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주 1회씩 4차례의 시범경매를 실시한 후 6월부터는 주 2회(월, 목요일)씩 본격적인 경매를 시행, 지난 23일까지 28차에 걸쳐 총 4백68두의 경매를 실시했다.

나주공판장이 산지에서 소 경매를 실시 함으로서 타지역 도매시장으로 출하시 발생하는 물류비용과 생체감량 발생문제를 해소시켜 주고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이루어져 한우사육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수요자들에게는 원하는 등급의 지육구매가 가능하고 산지 구매에 따른 부대비용 및 시간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주공판장은 앞으로 경매를 주 3회로 늘리는 등 경매 횟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8월30일 윤양한 기자]

□ 천하제일사료, 제2회 한우고급육 생산연구모임 성황리에 개최

그동안 소홀이 취급됐던 번식우관리가 한우산업에서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번식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프로그램이 미흡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천하제일사료(총괄사장 김영욱)가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개최한 제 2회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번식우의 사양관리와 프로그램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우번식우 사양관리, 천하제일 위더스 프로그램소개 및 한우동향, 한우송아지 선발요령, 비육장에 발생요인 및 대책, 한우브랜드육유통소개 순으로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대부분의 양축가들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덕영 천하제일 마케팅팀 차장은 한우번식우 사양관리 발표를 통해 소의 살찐 정도인 BCS를 활용한 번식우 관리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도 BCS활용률이 300마리 이상의 대규모 사육농가의 경우 49%정도이고 그의 대부분의 농

가에서는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양질의 조사료공급과 필수성분이 충분히 농축된 농후사료의 적정급여를 통해 BCS를 조절하면 번식우 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승기 축우PM도 천하제일 위더스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송아지안정사업, 다산우장려금 등을 통해 정부가 한우산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송아지가격상승세도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의 번식우 사육의욕이 증가해 지금이 번식우사업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근기 영남대학교수는 “한우 번식우에 대해선 지금까지 특별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이나 사료가 없었다”며 “이번에 천하제일사료가 번식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사료인 ‘위더스 임신’과 ‘위더스 포유’는 단백질과 에너지균형을 통해 포유기 유량을 최대로 유도하고 비타민과 광물질을 강화해 발정강화 및 수태율을 향상시키고 더블펠렛 형태로 유해미생물 살균 및 소화율 개선을 유도했다.

위더스프로그램은 특히 육성우와 초임우의 체성숙과 성성숙의 조화, 조농비 균형급여, 송아지폐사를 극소화에 핵심을 맞추고 있다. 또 초산우와 경산우의 BCS표준유지, 빠른발정재귀 및 비유량극대화, 발정관찰우선 등 사양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천하제일사료는 이를 통해 초종부 월령 14개월령, 초종부 체중 280kg, 초산월령 24개월령, 초산체중 400kg, 분만간격 12개월, 송아지폐사율 5%, 생시체중 25kg, 생산율 90%가 위더스프로그램의 목표이라고 소개했다.

[농수축산신문 8월 31일 김선희 기자]

□ 한우 3산차 이상때 우량송아지 생산

한우를 3산차 이상 분만하면 1~2산차에 비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한우 암소의 산차(産次)가 높아질수록 포유량은 물론 송아지 육성능력이 증가, 3산차 이상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축산연의 연구결과 3산 이상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1~2산차에 비해 이유할 때(생후 120일령) 체중은 14%, 6개월령 체중은 12% 더 증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유할 때 체중이 많은 송아지는 출하체중도 높아져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

또 3산차 이상의 어미소는 분만 후 120일까지 평균 총 유량이 526Kg에 달해 1~2산의 492Kg보다 많아 송아지 육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축산연 대관령지소 최재관 연구사는 “1~2산차 후 조기비육해 도축할 경우 유전능력이 우수한 암소의 손실뿐만 아니라 한우 번식기반 약화도 초래한다”며 “따라서 1~2산차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발육능력을 평가, 유전능력이 우수한 암소는 5산차 이상까지 송아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우량 송아지 생산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전화 033-335-5312.

[농민신문 8월31일 이종순 기자]

□ 전북한우조합 출범

전북한우협동조합(조합장:장성운)은 지난 30일 11시 전북 전주시 어린이회관에서 3백여명의 조합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한우전문조합으로 정식 출범했다.

특히 임원선출에서 초대 조합장에는 장성운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신입 임원으로선 상임이사에 정성환씨를 선임한 것을 비롯 △이사 강현수, 김덕화, 양정식, 최정근, 이영환, 김근신 △감사 이경연, 고상현씨 등을 각각 선임했다.

전북 한우조합의 이날 창립은 대국경북한우조합 창립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 한우 전문조합 탄생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전북한우조합은 전라북도 일원을 구역으로 현재 한우 20두이상 사육농가 2백7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출자금도 2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합원 가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우조합의 사업계획으로는 사료취급량을 9월 1천5백톤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7천5백40톤(15억7천만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계통출하 알선사업으로 3백80두(11억4천만원)분의 판매실적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농가지도사업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9백7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 반면 사업관리비는 최소화 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장, 전임원의 무보수 봉사원칙을 세우고 있다. 발인인회까지 소요된 1백50만원의 경비도 추진위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9월3일 곽동신 기자]

□ (주)C&C 푸드시스템 창립총회 개최

브랜드 한우고기를 전문 판매하는 유통회사가 설립됐다.

브랜드 한우 사육농가와 사료업체, 유통가공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우고기 전문유통업체인 '(주)C&C 푸드시스템'은 30일 서울 소재 잠실관광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발기인대표인 김동수씨를 유통대표로, 류호진씨를 생산대표로 선출하고 본격 출범했다.

또한 감사에 이호림씨(천하제일사료 부사장)와 손근남씨(우성사료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박순용 중축개발협회장과 이규석 한우협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주)C&C푸드시스템은 생산과 소비의 중간유통부문을 맡아 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명 한우브랜드육의 공동출하를 통해 양축가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육을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이미 양평, 양주, 홍성, 영암, 김천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브랜드 한우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이중 1등급 이상은 생산자단체 고유 브랜드상표로 나머지 2등급 이하는 C&C푸드시스템 공동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9월3일]

□ 국내사육기간 산정시기 통관일에서 계류장 도착일로

수입생우 도착시 국내사육기간 산정시기가 통관일에서 검역계류장 도착일로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수입생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최종구매자가 식별이 가능한 낙인 외에 꼬리표 등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둔감판매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판매정보 등을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는 이와 관련, 수입생우의 국내 사육기간 산정시기를 현행 통관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한바 있다.

한우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수입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후 도축되면 국내산 육우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국내 사육기간을 계류장 도착일로 변경하게되면 검역중의 질병문제 등으로 검역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농가에서 3-4개월만 사육해도 국내산육우로 유통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농림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산신문 9월5일 김영란 기자]

□ 브랜드한우 도매시장서 인기-중도매입조합 “출하 늘려달라”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브랜드 한우로 첫 경매를 시작한 ‘홍천한우 늘푸름’이 중도매인과 유통업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는 가운데 서울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조합(회장 정강진)은 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회장)에 브랜드 한우가 도매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강진 서울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조합 회장은 “중도매인과 유통업체들이 좋은 한우고기를 원하고 있다”며 “브랜드 한우가 도매시장에 출하될 경우 높은 가격에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천한우 늘푸름’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 것은 소비자들이 고품질 한우고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과 유통업체들이 좋은 가격에 구매하게 됐다”면서 “브랜드육도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생산농가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9월10일 양정권 기자]

□ “전문협동조합 길 모색해야”

경인지역과 강원지역 축협조합장들은 9월 13~14 양일간에 걸쳐 이천축협 회의실에서 합동 협의회를 갖고 축산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축협이 하나가 된만큼 농업기자재는 농협이 축산기자재는 축협이 지역에서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중앙회 축산물 판매장은 지역 회원축협에 이관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 조합 판매장이나 지점에서 지역 농협의 쌀을 적극 팔아주기로 했다.

또한 조합장들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국제역 청정국 인증 신청을 한만큼 구제역이 재발되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서 하루속히 청정국 인정을 받아 축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며 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 한우·젓소고기 구별해 드립니다

한우고기와 젓소고기를 구별해 드립니다.

벤처기업인 코아바이오시스템(주) 부설연구소는 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한우·젓소고기 판별기술을 이전받아 15일부터 대형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김기환 코아바이오시스템(주) 부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검사기본샘플을 10개로 해 한우고기와 젓소고기를 구분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시험을 하기 때문에 검사기간은 1주일~10일 가량 소요된다”고 말했다.

기술을 이전한 축산기술연구소는 한우고기 판별용 SCAR프리머 기술을 1999년 8월, 한우 및 젓소고기 판별 DNA표시인자 판별법을 지난 2월 각각 특허를 획득했다.

[농수축산신문 9월15일 최기수 기자]

□ 암소값 4백만원 ‘고공비행’

강원 춘천, 충남 홍성, 경기 파주 금촌 가축시장 등지에서 암소가격이 4백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암소 도축 마리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집계한 올 8월 도축실적 결과에 따르면 8월 한달간 도축된 한우 암소 마리수는 모두 2만3천4백44두로 지난달의 2만2천6백86두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지난해 8월의 4만1천9백38두보다 무려 1만8천4백94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소값 강세에 따라 송아지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나며 암소 도축 역시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현재 산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4-5개월령의 송아지 가격은 2백만원에서 2백15만원에 거래되는등 2백만원을 웃돌고 있고 수송아지의 경우도 1백85만원에서 1백93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도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암소 도축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송아지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증가하며 암소 도축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산신문 9월17일 신상돈 기자]

□ 농림부 강한 정책의지 보여...

자금률40%,한우사육2백30만두선 유지, 그리고 경쟁가능가격230만원~250만원. 이는 농림부가 2004년까지 목표로 하는 한우산업의 정책좌표이다.

농림부의 카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다산우장려금제도입,거세우장려금지원,우수축출하포상금지급 등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6월 기준 한우사육두수가 1백82만두에 불과하지만 최근 다산우장려금제 실시로 인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4연후면2백만 두에서2백30만두는 유지될 것으로 장담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신념과 의지)라며 한우 사육기반회복은 결국 농가들의 의에 맡겼음을 강조했다.

고품질의 냉장이 고기가 수입되고, 생우마저 수입되는 상황에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사육두수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문제니 만큼 한우농가들이 수지맞는 한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우다산우 장려금 정책을 좀 더 보완하여 4산,5산,6산등의 다산을 하더라도 2산, 3산 때와 같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차액 보상 제를 실시해야 한우 식육 의욕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직불제를 실시하고있는 만큼 우리도 직불제를 실시해야 실질적인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 농림부가 목표로 하고있는 자금률과 사육두수 목표를 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 강조한다.

과연 한우 고기 자금률40%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기대를 걸어본다.

[축산신문 9월19일 김영란 기자]

□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성료

강원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우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 29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가 지난 14~15 양일간에 걸쳐 청정의 고장 양구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보다 좋게! 보다 크게! 청정강원한우 육성」이란 주제하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의 후보종모우부문 챔피언에는 인제군 남면 신월리에서는 전점순씨가 사육한 한우가 차지했으며, 숫송아지 부문은 양구군 이중식씨, 한우고급육부문 철원군 김성권씨, 큰암소부문은 강릉시 김광래씨, 암소 육성우부문은 횡성군 연내언씨 암송아지부문은 김기환씨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종합우승 시군에는 양구군이 최우수상에 홍천군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축협에는 양구축협이, 우수축협에는 홍천축협이 각각 차지했다.

한우품평회와 더불어 이번행사에는 한우그림그리기, 송아지와 함께 달리기, 우유 빨리 마시기, 흑염소 힘겨루기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고조 시켰다.

[축산신문 9월19일 홍석주 기자]

□ 성료한우거세 기금적립 등 필요

한우 송아지 거세 작업때 사고 위험이 많아 시술 전문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협에 따르면 최근 한우 농가들의 고급육 생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데다 거세할 경우 정부로부터 2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거세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거세된 송아지는 4만8,000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거세작업은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될 정도로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들이 거세 시술을 기피, 지역 축협에 거의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역축협 지도사들이 거세 시술을 주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눈을 다치는 등 각종 부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역축협 지도사들의 피해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효문 농협 축산지원부 한우사업단장은 “현재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거세장려금중 일부를 사고를 대비해 각 지역축협에 적립하거나 정부와 축협 차원에서 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따로 들어놓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9월19일 김태역 기자]

□ OIE 구제역 청정지위 인정-내년 5월 최종 확정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아 내년 5월 구제역 청정국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림부에 따르면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요청한 ‘구제역 청정화 지위획득을 위한 요청’을 심의,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OIE 회원국 158개국에 대한 고지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예정인 OIE총회에서 구제역 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8월말 예방접종 중단이후 축산업계는 물론 범정부차원의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1년간 구제역 재발을 방지, 청정화 조건을 갖춘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8월 27일 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구제역 청정화 지위획득을 위한 요청’을 제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복귀를 위한 8부능선을 넘은 상태지만 아르헨티나 등의 예에서 보듯이 백신중단 2년이내에 재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철저한 소독 등 지속적인 방역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수입검사와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색을 강화하고, 방역의식의 고삐를 다시 당겨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월 2회씩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이달중 일본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다만 대일 돼지고기 수출은 상대국인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출이 재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양돈농가의 신중한 입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9월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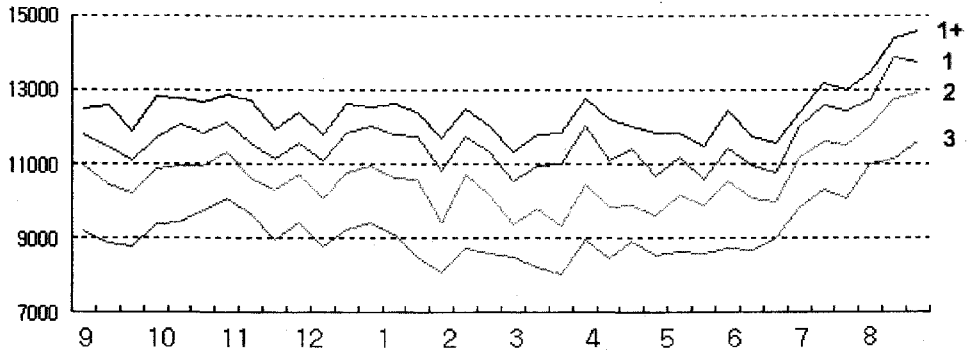
도축실적 (2001년 08월)

□ 소 암수별 도축실적 (2001년 08월)

(단위 : 두)

구분	총계	한우			유우	육우	교잡우
		계	암	수	계	계	계
1월	114,880	91,283	49,013	42,270	21,767	1,454	376
2월	35,261	26,236	15,331	10,405	8,500	447	78
3월	46,065	35,229	20,135	15,094	10,180	521	135
4월	50,157	39,414	21,979	17,435	9,927	636	180
5월	56,630	44,486	24,310	20,176	11,199	775	170
6월	54,251	41,377	22,182	19,195	11,605	1,076	193
7월	58,756	44,248	22,686	21,562	13,030	1,284	194
8월	63,785	46,818	23,444	23,374	15,367	1,409	191
전년동월	93,408	76,630	41,938	34,692	15,487	944	347
전월대비	108.6	105.8	103.3	108.4	117.9	109.7	98.5
전년대비	68.3	61.1	55.9	67.4	99.2	149.3	55.0
당월누계	479,785	369,091	199,580	169,511	101,575	7,602	1,517
전년누계	662,509	546,444	311,359	235,085	105,784	6,203	4,078
전년누계 대비	72.4	67.5	64.1	72.1	96.0	122.6	37.2

□ 한우(전체)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농협서울공판장)



(단위:원/kg)

등급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B1 +	12,403	12,746	12,485	12,229	12,570	11,911	11,564	12,273	11,715	11,821	12,818	14,220
B1	11,495	11,910	11,550	11,510	11,896	11,120	10,820	11,485	10,789	10,981	12,385	13,491
B2	10,642	10,912	10,773	10,485	10,746	9,881	9,445	10,050	9,875	10,136	11,431	12,629
B3	8,980	9,485	9,507	9,105	9,105	8,314	8,200	8,765	8,580	8,788	10,058	11,334
평균	10,051	10,643	10,553	10,167	10,221	9,753	9,235	9,809	9,606	9,971	11,179	12,334

□ 축종별 및 시·도별 도축실적 (2001년 08월)

(단위 : 두/수)

축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한우	당월	46,818	3,798	570	850	190	1,360	791	1,670	7,557	3,612	3,466	3,480	4,032	3,778	5,961	5,613	90
	누계	369,091	26,852	5,798	5,881	1,636	10,433	7,061	12,886	60,161	27,674	26,239	32,465	30,554	31,486	45,276	43,844	865
유우	당월	15,367	3,792	570	2	381	357	139	-	5,335	513	654	1,196	630	532	375	827	64
	누계	101,575	27,983	3,617	14	2,645	1,986	791	34	33,193	4,882	2,830	7,669	4,500	3,559	2,117	5,358	397
육우	당월	1,409	254	67	323	503	-	-	1	117	-	27	2	112	2	-	1	-
	누계	7,602	630	488	2,431	2,857	4	1	4	367	32	144	28	489	41	16	70	-
교잡우	당월	191	21	-	1	-	-	5	4	15	15	5	3	29	-	4	8	81
	누계	1,517	160	-	9	-	-	41	10	69	55	43	33	102	24	28	84	859

제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사양관리

- 일정: 도체평가 실시: 2001년 11월 13일~ 11월 19일(6박7일)
보고회: 2001년 12월 13일~ 11월 14일(1박 2일)

2001년 제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 입식 19개월령새의 사양관리

● 사양관리 요령

- 농후사료(배합) 급여량 : 8.0kg
- 조 사료 급여량 : 1.0kg 이내
- 총 사료 급여량 : 9.0kg 내외
 - 이제부터는 증체도 증체지만 증체보다는 비육마무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아직도 사료를 많이 먹는 소는 권장량은 신경쓰지 마시고 그 이상을 급여하여 주십시오.
 - 또한 지방조성과 육질의 향상을 위해 조사료(청초, 사일지리)의 급여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1개월입니다.

이 내용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되었습니다.

능력평가 대회가 11월 초·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농가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쯤이면 1개월이 조금 더 남을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사료섭취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마리가 한 우사안에 들어가 있어도 개체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 500kg이하의 경우인 소가 있으면 이 소는 출하를 했어도 심사대상우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체중이 500kg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사양관리를 한것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파악하여 보아야겠습니다.

비록 「A1+」가 나오지 않고 「B1+」가 나온다면 지육중량이 무거워야 우리에게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지방이 너무 두꺼워서 20mm 이상이 될 것 같다면 C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소를 가지고도 5두중에 3두를 선발해야 하는데 어떤 소를 선발할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회 대회와 3회 대회 때에도 골라서 출하한 소는 등급이 안나오고 집에 있던 소를 출하해보았더니 굉장히 등급이 잘 나왔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최후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고기가 선홍색의 좋은색으로 되기 위해서는 도축후에 근육속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색소가 환원형에서 산소형으로 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절대로 필요한 것은 근육내의 글리코겐이 축적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의 축적은 사료섭취량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증·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최후까지 깔짚의 교환을 자주하는등 쾌적한 환경의 유지에 노력하고 사료섭취량의 증대, 스트레스의 경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 제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우 기준

1. 출품농가 자격:

- 출품신청서 제출당시,
-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 종신 또는 정회원, 단체회원

2. 출품우 가격:

- 등록단계기준: 본회 등록규정에 따른 혈통등록된 수송아지로 최종출품시 거세우
- 생년월일 기준: 2001. 6. 1~ 2001. 9. 30일 사이에 생산된 소(도축일정은 2003년 10월경이므로 약 26개월령 정도 됨)

3. 출품 대상두수 및 출품두수

- 출품 대상두수는 회원당 1개조 5두로 최종출품우는 3두

4. 출품대상우(송아지) 입식시 참고사항

- 현재 한우 혈통등록우는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지역 축협 및 일부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담당자와 밀소확보를 위한 협의
- 일반 가축시장 또는 경매시장에서 초록색 이표를 부착한 수송아지를 구입할 경우 구미확정 이전에 전화로 본회 한우개량부에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일부 등록을 하지 않고 이표만 부착 하고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있음)
- 구입일자 구입가격, 입식일자, 입식체중등을 각 개체별로 기록하여 두었다가 본회 직원이 요구시 제출

5. 제6회 대회 출품신청서등 양식

- 대회 참가 희망농가는 본회 소정의 참가신청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양식 제10월호 한우개량지 게재 예정

◆ 제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우 준비

2001년 9월 22일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위원회에서는 제6회대회의 출품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